

##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이 근 무\*\*

(삼육대학교)

김 진 숙\*\*\*

(조선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자살자 가족들이 가족의 자살후 겪었던 생애경험에 대한 연구로서 이론적으로는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의 본질구조를 살펴보고자 했고 실천적으로는 자살자 가족의 심리, 정서, 사회, 문화적 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의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다. 연구는 현상학적 사례연구방법으로 수행했고 연구에는 5명의 자살자 가족이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으로 수집했다.

Van-Manen(1990)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1의 본질적 주제는 「은적지파기」와 「암호에서 맴돌기」였고, 연구참여자 2는 「소생적 파국」과 「버려진 땅에 씨뿌리기」, 연구참여자 3은 「낮설음으로 살아가기」, 「마중물 붓기」, 연구참여자 4는 「비극의 짐 떠맡기」, 연구참여자 5는 「정지된 생애시간」이었다. 공속성의 틀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세계를 관통하는 전형적 주제는 「떠난 자의 잔여범주로서의 남은 자의 삶」이었다.

주제어: 현상학적 사례연구, 자살, 자살자 가족의 경험

“부모가 죽으면 청산(靑山)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자살한 우리 남편은 어디에다 묻어야 하는지...(이하중략)”(연구참여자 3의 구술中 일부)

\* 이 논문은 2008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자살현상은 ‘자살공화국’, ‘자살신드롬’이라는 암울한 세간의 유행어가 시사하듯이 자살행위자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일회성 에피소드가 아니다. 자살은 재론의 여지없이, 생명이라는 가장 귀중한 가치의 상실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긴다.

자살이 남긴 사회적 후유증들 중 하나는 자살자 가족이 겪어야만 하는 심리, 정서적 고통이다. 자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통상의 죽음을 목격한 가족들이 겪는 애도반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Cleiren and Diekstra, 1995 ; Ellenbogen and Gratton, 2001; Mitchell, Sakraida, Kim, Bullian and Chiappetta, 2009). 자살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죽음으로 야기된 애도반응은 산자와 죽은 자의 분리를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passage ritual)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상의 정상성을 회복한다. 하지만 자살자 가족들은 자살이라는 비극성,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극심한 통과의례를 거쳐야만 한다. 자살자 가족들에게서는 주된 증상인 우울을 비롯하여 죄책감, 무력감, 부정, 불안장애, 부끄러움, 사회적 철퇴(Clayton, 1990 ; Tekavcic-Grad and Zvasnik, 1992; Silverman, Range and Overholser, 1994; Jordan, 2001; De Groot, DeKeijer and Neeleman, 2006 ; Onrust, Cuijpers, Smith and Bohlmeijer, 2007 ; Cerel, Jordan and Duberstein, 2008)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현되고 소수의 경우이지만 가족의 자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지속되어 또 다른 자살을 야기하기도 한다(Figley and Kleber, 1995 ; Pompili, Lester, De-pisa, Del Casele, Tatarelli and Girard, 2008). 가족의 자살은 이렇듯 심한 경우 개인의 해체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살의 파급효과는 직계혈연가족에 그치지 않는다. 자살은 자살자의 먼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어 지역사회 해체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Harwood, Hawton, Hope and Jacoby, 2002 ; Marschean, 2002).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보고 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자살은 한 개인의 비극적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개인과 체계를 동시에 파괴하는 이중실패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살예방 못지않게 자살자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자살자 가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범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기관의 통계를 기초로 자살의 실태, 추이 등을 파악한 연구(은기수, 2005; 배지연, 2004; 배재남, 2001; 김형수, 2000) 들이고 둘째는 자살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한승용, 2008, 박병금·노필순, 2007; 엄태완, 2007; 정호영·노승현, 2007; 홍영수·전선영, 2005; 김승용, 2004; 박경애, 1996), 셋째는 우울, 무망감,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취약요인과 사회적 지지나 자아통제감 같은 보호요인이 자살관념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를 분석한 연구(최연희·김수현, 2008; 김현순·김병석, 2007; 박봉길·전석균, 2006; 김형수, 2002; 이은숙, 2002; 홍나미, 1998; 윤성립·윤진, 1993), 그리고 범주화 하기 어려운 소수의 연구들로는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자살관련 변인과 원인 등을 규명하려는 연구(이신영,

2004)들과 역시 신문기사를 기초로 동반자살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한 연구(이미숙, 2007; 정승민, 2004; 박상학·김경환·김학렬·김상훈·표경식·조용래, 2000; 김정진, 1998; 손현군·김이영·안동현, 1997) 그리고 질적연구접근을 통해 노인들의 자살생각 극복경험과 구성요소를 살펴본 연구(조계화·김영경, 2008)와 자살경험자의 관점에서 자살을 통해 지향하고자 한 바와 의미구조를 살펴본 연구(박지영, 2007)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자살자 가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다만 자살자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나 적응의 문제가 파편적인 삽화로 소개되고(김형수, 2002; 박지영, 2007)있을 뿐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전문(轉聞) 정보나 지식만으로는 자살자 가족이 겪는 다양한 고통과 적응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없다. 마땅히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을 주제화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들은 자살자 가족들의 가족의 자살후 생애경험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자살후 참여자들이 겪었던 심리, 정서적 고통의 내용과 이것의 전개과정은 물론 내부자적 관점(emic)에서 가족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그들이 구성한 의미와 경험의 본질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연구자들은 현상학적 사례연구(phenomenological case study)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현상학적 사례연구를 방법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탐구하고자 하는 사상(事象, sache)과 그것의 파악수단인 방법론간의 규범적 필연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3절 연구방법에서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자 가족의 자살후 삶의 경험을 세부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조망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연구결과는 자살자 가족들의 심리,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2차적 외상장애(secondary posttrauma disorder)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 구성에 경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자살자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자살자에 대한 평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적이다. 특히 종교적 입장에서 자살은 자기살인(Lactantinus, 이상원, 2004에서 재인용)으로 간주된다. 사회과학자들 역시 자살은 자기통합의 실패로 보는 관점을 견지해 오고 있다. Durkheim(1897)은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욕망이 규제에서 이탈하는 아노미로 자살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 후 Durkheim의 고전적 아노미이론으로 자살을 설명하고자 했던 사회과학자들은 자살을 하나의 실패로 규정해 왔다. Merton(1938)은 아노미를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의 불일치로 설명했고 Gibbs와 Martin(1964)은 상충되는 역할간의 긴장을 통합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지위통합의 실패로 보았다. 사회과학자들은 이처럼 아노미를 다양하게 변주했지만 그 기저적 정의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가 위와 같이 대체로 부정적이기에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자살자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이어지고(Crinar, 2005; Jordon, 2001) 가족들은 다양한 심리·정서·사회·문

화적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 자살자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비중있게 이루어진 주제는 위와 같은 부적응 문제이다. 하지만 우울과 불안장애를 비롯한 부정적 반응은 가족관계에 따라 그 정도와 지속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McIntosh와 Wroblewski(1988)는 자살자 가족이 겪는 애도반응(grief reaction)과 이로 인한 고통 등은 자살자와의 가족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다. Reed와 Greenwald(1991)는 가족의 자살로 인한 고통과 충격은 자살자의 부모들이 배우자보다 강하게 경험하고 자녀와 형제는 그 정도와 지속성이 약하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관측은 최근에까지 이어져 자녀를 잃은 부모의 상실감은 부모와 배우자 상실로 인한 고통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Leathy, 1992 ; Stroebe and Schut, 2001)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자살자 가족의 애도반응은 가족간의 위치보다는 가족간의 애착과 같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Worden, 2001).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등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주었던 가족의 자살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Tall과 Kolves, Sisask 그리고 Varnik(2008)는 261개의 자살사례에 심리학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연구로 접근하여 알코올남용자살자 가족과 그렇지 않은 자살자 가족을 비교 연구했는데 알코올남용자살자의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자살자 배우자보다 분노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자녀들 역시 죄책감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피붙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가족은 서로의 존재를 이어주고 확인하는 존재의 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의 비극적 상실로 야기된 고통과 슬픔 등은 Virginia Wolf가 언급한 그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사적인 언어(private language)이다. 가족의 자살로 인한 고통과 슬픔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자살자 가족의 애도반응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비교측정으로 접근하여 자살자 가족의 비탄과 충격 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판단된다. 자살자 가족의 자살후 애도반응이나 심리, 정서적 문제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자살자 가족과 다른 유형의 죽음을 목도한 사망자 가족을 비교 분석했다.

Cynthia와 Karus 그리고 Jiang(2000)은 암으로 부모를 잃은 57가정의 자녀 64명과 부모가 자살을 한 11가정의 자녀 16명의 우울증상과 행동문제를 비교 연구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자 가정의 자녀들은 암으로 부모를 잃은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할 때 우울증상, 부정적 기분,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 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가장 최근에 Seguin과 Lesage 그리고 Kiely(2009)는 자녀가 자살한 어머니 16명과 자동차 사고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 16명을 비교 연구했는데 양자 모두 불의의 죽음이라는 유사성이 있지만 비극성은 자살이 사고사보다 심하고 애도반응과 과정 역시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위의 연구들에 비해 또 다른 연구들은 자살자 가족들이 겪는 애도반응과 상실의 과정은 다른 유형의 죽음들, 즉 예상치 못한 죽음이나 사고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반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Jordon, 2001 ; Ellenbogen and Gratton, 2001; Cleiren and Diekstra, 1995)고 보고했다. 특히 매우 폭력적인 죽음이나 사회적 낙인이 심한 죽음인 경우 가족들은 다양한 정신적 문제와 손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Mitchell and Everly, 1996 ; Zisook and Schuchter, 1993 ; Spratt and Demney, 1991). 하지만 애도반응과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과 고통의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자살

자 가족들이 가족의 자살에 대해 어떤 의미를 구성하고 무엇을 지향하는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현상학적 사례연구 접근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자살자 가족의 경험의 본질구조에 접근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사례연구(phenomenological case study)란 개인의 주관적인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의 본질적인 구조를 규명하려는 정향을 지닌(Van-Manen, 1990) 현상학적 연구방법과 하나(또는 여러 개)의 사례를 맥락 속에 위치시켜 놓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구자의 관심분야를 심층분석하는(Creswell, 1998) 사례연구방법을 결합한 것으로서 자살자 가족의 경험이 시간의 경과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구성되는가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 사료된다.

####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례안에서 사례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드러내고자 하기에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만들었다. 첫째, 가족성원 중 일인이 자살을 했고 자살 사건이 있는 후 3년 이상을 경과했을 것으로 했다. 이는 시간의 구조 속에서 개인이 경험한 바의 본질구조를 살피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자살자 가족은 부부사이거나 근친간으로 한정했다. 이는 주제를 특정하여 이에 집중하고자 함이었다.

선정기준에 맞는 연구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선정했다. 연구자들과 교분이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종교인 등에게 참여자 소개를 부탁했고 연구참여자를 구성했다. 참여자 선정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였다.

연구자들은 9명의 연구참여자를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나 심층면담 진행중 3명이 연구참여를 철회했고 1명은 면담이 끝난 후 논문으로 발표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해 5명의 사례만을 분석했다.

자료는 연구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수집했다. 포화성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공히 바닥이 드러났다고 인정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참여자별로 4~6회였고 1회당 소요시간은 평균 110분이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심층면담을 수행했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Van-Manen의 분석틀을 원용했다. 일반적으로 Van-Manen의 분석틀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그림, 시, 소설 등과 같은 예술,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감되는 경험으로 현상학적 텍스트를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문학 예술작품의 분석 대신 연구참여자들의 프로토크를 구성하고 이를 제시했다. 문학이나 예술보다 때로는 실체가 더 큰 현상학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아이디어를 분출하는데 가족의 자살과 같은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세계는 실체가 문학, 예술적 영감보다 해석을 매개하는 데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자료는 줄단위로 분석하여 의미가 구성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이 개념들을 현상학적 해석과 성찰을 통해 주제로 구성했다. 이렇게 하여 표현된 주제는 「드러난 주제」로 명명했다. 그리고 이 드러난 주제들을 관통하는 것으로서 「본질적 주제」를 구성했다. 본질적 주제는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현상학 연구에서는 개인의 개별 경험을 구분없이 묶어 주제를 구성한다. 하지만 동일한 경험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개인이 동일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경험 등을 묶는 행위는 개인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속성으로 묶여 있다. 결국 문제는 고유성과 공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 별로 각각 그들의 경험에서 해석된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를 구성하여 참여자별로 고유성을 확보하려 했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세계에서 공속성으로 묶일 수 있는 「전형적 주제」를 구성하였다. 전형적 주제는 전체를 종합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4) 연구의 엄격성

연구결과의 엄격성(rigor)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합의적 분석모델을 채택했다. 이는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연구자들은 해석과 기술을 참여자들에게 제시했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차 반복했다.

## 4. 연구결과

### 1) 연구참여자별 개별사례요약

#### (1) 사례 1

연구참여자 1은 2008년 현재 52세로 서울 근교의 지방소도시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12년 전 구정 전날에 자살을 했다. 참여자의 표현대로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참여자는 아직도 아버지가 자살을 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참여자는 지금도 아버지가 왜 자살을 했는지 그 원인조차 추측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당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였다. 문하에는 전수생도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었다. 대지주는 아니었지만 “서른 마지기”(약 6천평) 정도의 전답을 지니고 있었다. 농협에 부채도 없었고 농사수입과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그리고 간간히 행사에 나가 받는 사례비 등의 수입으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가 기억하는 한 가정불화 역시 없었고 대인관계 또한 원만했다고 한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구정 전날에 자살을 했다고 한다. 참여자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만들고 고스톱을 치며 흥겨워하고 있을 때 참여자의 아버지는 마당에 서성이다 이유도 없이 “에이 개같은 놈들”이라는 욕을 한 후 집을 나갔고 다음날 아침 가족들은 집 뒷산의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소나무는 동네 뒷산 성황당 근처에 있는 나무로 동네 사람들은 “귀신불은 자살나무”로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살던 참여자의 당숙과 친척 아저씨뿐 되는 두 사람이 그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을 했다고 한다(참여자의 거주지는 집성촌(集姓村)으로 마을사람 대부분이 친척이다). 참여자는 현재까지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가 자살한 흔적을 보고 살아야만 한다.

#### (2) 사례 2

사례2의 연구참여자는 2008년 현재 45세로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금융기관에 취직을 했고 IMF때에도 위기를 잘 넘겨 마흔이 넘은 나이에 직장 다니고 있다. 참여자의 표현대로 “억세게도 운이 좋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사설영어교습소를 운영하는 부인(43세)과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참여자의 인생여정은 그의 표현대로 “화려할 것은 없지만 그런대로 순탄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살은 “아직도 풀 수 없는 숙제이고 평생을 지고 가야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

참여자의 부모는 K시 근교의 농촌에서 살고 있었다. 참여자의 부모는 평소에도 부부금슬이 좋지 않아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5년 전 참여자는 어머니가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

버지의 전언에 의하면 자살하는 날 저녁을 먹은 후 저녁 찬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약간은 심하게 다투었다고 한다. 서로 다투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평생 종노릇하고 살았다”며 방을 나갔고 뒤이어 창고에 있던 맹독성의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자살 사건이 있는 지 2년이 안되어 참여자의 아버지는 재혼을 했다. 주위에서는 구구한 말들이 많았지만 참여자는 이를 수용했다.

### (3) 사례3

사례3의 참여자는 2008년 현재 38세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참여자는 C도 C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참여자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남편이 자살을 한 후 이곳으로 이주했다.

참여자가 기억하고 있는 남편은 생활력이 강하고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참여자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끔찍한 투신자살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했다. 참여자의 남편은 6년 전에 자살을 했다. 당시 참여자와 남편은 수도권의 소도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다고 한다. 당시 남편은 지역에서는 소문난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참여자의 남편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게를 참여자에게 맡기고 서울 근교의 국립공원에서 아이스케기장사를 했다고 한다. 참여자의 남편은 약 500개의 아이스케기가 든 아이스박스를 매고 해발 800미터에 육박하는 산정상까지 올라가 아이스케기를 팔았다고 한다. 이렇게 주말에만 하는 장사수입이 “웬만한 월급쟁이” 수입보다 좋았다고 한다. 참여자와 그의 남편은 열심히 일한 결과 중형아파트 한 채와 10여명 정도의 상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남편은 상장회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증권에 문외한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가 사람들과 어울려 증권투자를 하게 되었고 얼마가지 않아 계좌는 “깡통계좌”가 되었고 아파트와 상가는 경매에 붙여졌다고 한다. 참여자의 남편은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늘어나는 것은 빚뿐이었다고 한다. 참여자는 남편의 자살을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의 극단적 선택이라고 나름대로 추측을 했는데 자살의 방법이 너무나 끔찍했다.

참여자와 남편은 재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찾아갔다 거절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가도로 위에 차를 세웠다고 한다. 고가도로위의 정차는 불법이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세운 후 참여자의 표현대로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걸어가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가도로에서 뛰어내렸다고 했다. 참여자가 목격한 남편의 최후모습은 두개골이 파열되어 골수가 흘러나오고 피범벅이 된 끔찍함 그 자체였다고 한다.

참여자는 주위로부터는 “서방 잡아먹은 X”, 경찰로부터는 남편을 밀어 추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받으며 살다가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 (4) 사례 4

사례 4의 연구참여자는 2008년 현재 38세로 서울에서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참여자의 가족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두 살 터울위인 형의 죽음이었다고 한다. 참여자의 형은 약 20년 전에 자살을 했다고 한다. 20여 년 전 참여자의 가정은 매우 빈한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릴 적 유행성 뇌출

혈에 걸려 사망했고 당시 참여자의 아버지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두 형제를 데리고 서울로 이주했다. 고향의 가산을 총정리해서 얻은 것이 서울 번두리의 지하 단칸방 전세였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파출부를 했고 두 형제는 신문배달을 했다고 한다.

참여자의 형은 인문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대학에 진학을 못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약 석 달간 가구 공장에서 보조기능공으로 일하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산행을 다녀온 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했다고 한다. 참여자의 형은 유서를 남겼는데 참여자에 의하면 유서의 내용이 유치하면서도 한 없이 슬펐다고 한다. 아주 짝막한 유서였는데 내용은 “나비넥타이를 매고 웨이터로 일하다가 부잣집 딸을 꼬셔 폼나게 살고 싶었다”였다고 한다.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나 염려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

형의 자살후 참여자는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현재는 분가하여 살고 있다. 부인은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관리와 홀서빙을 맡고 있고 참여자는 주방을 맡고 있다. 슬하에 2녀가 있다.

### (5) 사례 5

사례5의 연구참여자는 2008년 현재 43세이다. 3년 전 부인이 음독자살한 후 딸(4세)과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군제대후 식품유통업체의 배달기사로 취업을 했다. 아내는 당시 연구참여자가 일하던 회사의 경리 여직원이었다. 연구참여자는 32세 되던 해 아버지의 유산을 밀천으로 하여 식당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은 번창했고 30대 후반에 상가빌딩(연건평 1,000㎡, 약 300평)을 소유할 정도로 성공을 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의 표현에 의하면 “집안에 망조가 든 것은 돈을 번 이후”였다.

연구참여자에 의하면 그의 부인은 “의부증과 망상이 심했다”고 한다. 참여자의 아내는 남편 주위에 있는 모든 여자를 의심했고 참여자의 행동반경과 동선까지 파악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한다. 참여자는 당시를 “지옥”이라고 술회했다.

참여자는 부인이 자살을 하기 전 보험모집인(여성)과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보험모집인은 참여자의 군대 동기의 여동생이었다고 한다. 참여자는 필요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시장 상인들도 소개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참여자의 아내는 이것을 외도로 단정했고 참여자의 표현대로라면 “극악”을 떨었다.

참여자의 아내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 그 유서에는 “살아서 못 갚은 거 죽어서 귀신이 돼서 갚겠다”, “니가 만나는 X들 00구멍은 다 막아 놓을 것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꼭 지옥에서 만날 거다”, “나쁜 놈, X 같은 XX” 등등의 욕설과 원망 그리고 저주로 가득차 있었다고 한다. 참여자는 유서를 소각했다고 한다.

## 2) 사례별 현상학적 이해

본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을 해석학적 이해를 통해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본질적 주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는 연구참여자로 구조화했다.

## (1) 연구참여자 1

〈표 1〉 연구참여자 1의 경험에서 해석된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은적지 파기	스스로 짝은 낙인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섬
암호에서 맴돌기	흔적찾기
	풀지 못한 마지막 낚두리

## ① 은적지 파기

자살은 자연스러운 죽음의 부정이자 역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재역전과 부정의 부정으로서 사회적 낙인이 생성된다. 연구참여자 1은 한동안 주위의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표현대로 “남의 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집성촌(集姓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보였던 노인의 자살은 충격과 경악이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낙인은 세인(世人)들의 분주한 일상사에 묻혀 점차 희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는 낙인을 스스로 내면화했다. 이러한 해석은 아버지의 자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는 연구자의 현상학적 질문과 그 의미를 중죄인으로 규정된 참여자의 자기해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뭐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제 사람이네.. (중략) 이번에는 내가 부모 죽인 놈이라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도 나는 부모를 죽인 놈이다.. 부모가 살만큼 살고 돌아가셔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살을 하셨으니까 죄인중에도 중죄인인데.. (이하중략)”

자기 스스로를 중죄인으로 규정한 연구참여자 1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했다. 아버지의 자살 전까지만 해도 연구참여자 1은 “○○총연맹지부장”, “○○농협대의원”, “군정자문위원”등을 맡아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주위로부터는 “군의원”에 출마하라는 강력한 권유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의 표현대로 “중죄인”은 사회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결격자였다. 그렇다면 중죄인으로서의 개인적 삶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해석작업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는 자신과 가족의 삶을 뿌리를 상실한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성반이(씨족)들이 사는 데니까 대소사에 참여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까 그렇고.. (중략) 농사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동네 사람들하구 왕래도 해야 되니까.. (중략) . 전담부지 팔아야 시내가서 기반잡기도 힘들고 배운 도둑질이 농산데... 그러니까 (담배를 꺼내 물고 망설임) 끼지도 못하고 떠날 수도 없고.. 고향인데 타향에서 사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위와 같은 참여자의 구술회고를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섬”으로 주제화했고 “스스로 짝

은 낙인”,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섬”이라는 「드러난 주제」를 「은적지 파기」라는 「본질적 주제」로 구조화했다. 은적은 ‘숨어살다’, ‘자기 자신을 감추다’는 의미의 숨을 은(隱) 과 ‘중적을 감추다’, ‘도망가다’의 뜻을 지닌 적(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세계에서 한편으로는 탈출하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숨기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양식을 구조적으로 표현한 주제이다. 특히 연구참여자는 농사 짓는 일을 땅두더지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 역시 땅두더지 인생으로 규정했다. 본래 땅두더지란 농부를 비친한 방식으로 비유한 어휘인데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땅두더지 인생으로 자주 (6회) 비유했다. 숨을 곳과 도망갈 곳을 파는 두더지와 아버지의 자살과 닿아있는 자신의 삶의 양식이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구성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 ② 암호에서 맴돌기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한 듯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구정 전날 흥겨워하는 가족들에게 “에이 개같은 놈들”이라는 이유없는 욕을 한 후 자살을 했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의 자살에 대해 주위에서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자살로 규정했고 일부는 자살나무에 붙은 귀신들에게 씌웠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지만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호사기들의 세평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아버지의 자살동기와 원인을 집요하게 탐색했다. 참여자는 아버지의 자살전 생애단편들을 추적했고 그 흔적에서 맴돌았다.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동네사람들 뭐 가끔 가지던 다방도 찾아가서.. (이하중략) 돌아가신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이유는 모르니까. 답답했어요(이하중략).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도 했는데 무당이 신이 집히니까 횡설수설하는데 맞지도 않고 순 돌팔이 무당이라..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아버지가 가지던 다방에도 앉아 있어보고 광에서 물건들을 꺼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연구참여자는 한동안 “에이 개같은 놈들”이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냇두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연구참여자 아버지의 냇두리는 별다른 의미없는 푸념이나 투덜거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냇두리는 연구참여자의 생애체험중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존재어로 분석된다. 냇두리는 불만이 있을 때 혼자 투덜대는 목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무당이 죽은 사람의 냇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라는 또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냇두리는 수화자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참여자 아버지의 냇두리 역시 해석될 필요가 있었다.

“왜 우리들이 갠지.... 도대체 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최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중략). 군대 있을 때 보안대에 있었는데 간첩들은 암호로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간첩은 아니지만 우리들한테 개같은 놈들이라고 암호를 던져지요.”

연구참여자 아버지의 마지막 냇두리는 위의 구술처럼 일종의 암호로 전달되었다. 암호는 해독되어야만 한다. 해독자에게 해독되어지지 않는 암호는 그 자체로서 시련이자 고통이다. 신화에서 아버지가 남긴 암호의 해독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의 재결합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자기의 회복이다. 고구려

의 시조 주몽은 졸본부여로 떠나면서 육각형의 주춧돌 밑에 부러뜨린 칼의 한쪽을 묻어놓은 후 육각형 바위위의 소나무를 찾아 그 밑의 칼을 찾아 자기를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후일 유리왕이 된 주몽의 어린이들은 이 암호를 풀고 아버지를 만나 자신의 존재를 회복해야만 했다. 연구참여자 역시 아버지가 남긴 암호를 해석하고 풀어야만 했다.

암호의 해독은 목숨 자살이라는 비극적 수단으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와의 상상적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비극적 가족사를 회복하려는 의식의 지향으로 해석되었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해석은 “넋두리”가 연구참여자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와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현상학적 질문과 연구참여자의 구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아버지의 넋두리를 해독하지 못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숙제를 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기분”,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영 개갈 안나는 째째함” 같은 연구참여자의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아버지의 자살 후 대략 5~6년간을 혼란과 방황으로 점철된 생을 살았다고 한다. 결국 연구참여자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생의 단편들을 재구성하고 마지막 넋두리를 해석하여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미스테리의 중심에는 다가가지 못했고 주변을 맴돌았다고 해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아버지의 자살과 관계된 생애경험의 또다른 본질적 주제를 「암호에서 맴돌기」로 구성하였다.

## (2) 연구참여자 2

〈표 2〉 연구참여자 2의 경험에서 해석된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소생적 파국	실패한 삶의 재평가
	가족사의 재해석
버려진 땅에 씨뿌리기	아버지와의 화해
	비극의 재탄생

### ① 소생(甦生)적 파국(破局)

연구참여자 2의 경우 어머니의 자살은 어찌보면 예정된 결과 일수도 있다. 참여자의 기억에 의하면 어머니는 “여러 번 자살이벤트”(연구참여자 2의 구술)를 벌렸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군부대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농업이외의 별다른 산업이 없는 지역사회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시만 해도 월급과 보너스 그리고 퇴직금이 있는 직장은 흔하지 않았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바람기가 많았다고 한다. 참여자가 기억하고 있는 유·소년시절의 아버지의 초상은 “니나노집 매미(술집의 여종업원)들과 젓가락 장단을 두들기던”(연구참여자 2의 구술) 아버지였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는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저항을 했다. 하지만 자살은 늘 미수에 그쳤다. 어머니는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어린아들에게 30분 후 할머니를 모셔오라는 말 (당시 참여자의 외할머니는 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을 하는 등 자살이 언제나 미수에 그치도록 치밀한 사전설계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지막 자살시도는 성공했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맹독성의 제초제를 마시는 치명적 방법을 선택했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전에도 농약을 음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는 독성이 약한 살균제였다고 한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달리 줄곧 농사를 지어왔기에 농약의 독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의 자살은 아버지를 겁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종결의식이었다고 해석된다.

주위사람들은 참여자 어머니의 자살관련 과거 행적과 불같은 성격을 들어 충동적 자살로 규정하려고 했지만 참여자는 어머니의 자살을 '자신의 인생을 위협하는 참을 수 없는 위기에 대한 해결의 전략'으로 해석한다.

“ 어머니는 항상 쫓기는 것처럼 살아오셨어요. (이하중략). 아버지가 술드시는 날은 우리 식구는 죄다 스탠바이 었어요. 창피한 이야기인데 우리집 그전에 살던 기와집이었는데 문간방에 술집여자가 들어와 산적도 있어요. 아버지가 좀 무대뽀 기질이 있었는데 그냥 데리고 들어온거야.. (중략)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설피게 자살하다 몸만 축나고 그렇다고 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진짜 자살을 한 것이라고...”

어머니의 자살을 위와 같이 생애전략으로 해석한 참여자는 어머니의 삶을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으로 재구성했다. 이러한 참여자의 해석에 대해 상처입은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역설적인 심리작용이라는 예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에게 어머니의 자살은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벼랑끝에서의 생애전략으로 기명(記銘)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타인에게는 실패로 인식된 어머니의 삶을 재해석한 참여자는 자신의 가족사 역시 새로운 각도에서 재구성하여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자의 가족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콩가루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근동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였고 세 살 위의 형은 “개차반”이었다. 참여자의 형은 아버지의 인생유전을 물려받은 듯 고등학교 때 근처 새마을 공장의 여공을 꺾어 살림을 차리기도 했다. 참여자의 형은 군제대후 트럭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의 외할머니 역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여름 홍수때 실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집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집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비극적인 가족사를 재구성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어머니의 자살이었다고 해석된다.

“ 끔찍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냈어요. 진짜로 가슴이 찢어진다는게 어떤건지를 실감했는데.. (이하중략) 이제는 도대체 왜 우리집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생애 죄가 많은건지 집터가 안좋은 건지. 생각은 많았는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요. 이런게 우리 자식한테도 이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중략)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엄격하게 보면 형도 자살한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떡하든 자살귀신을 없애야 된다 (중략). 남들은 우리집을 콩가루 집안이니 집터가 세서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간다고 수군거렸지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 꼭 차 있었어요. ”

연구참여자는 자살, 비명횡사로 얼룩진 가족사를 전생의 업을 씻기 위한 일종의 과보로 해석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는 불교신자도 아니고 윤회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사의 비극을 업을 씻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존재의 부채로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에는 값을 다 치루었으니 자신과 자녀들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을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고 의미를 찾음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지향도 큰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참여자의 구술에 근거하고 있다.

“불난 끝이나 물난리끝에도 다 쓸어없어진 것 같아도 남은 건 있죠. 남들은 희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일수도 있어요 (중략).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남들보기엔 흉하고 끔찍하지만 형도 할머니도 그렇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정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참여자는 이렇듯 실패로 간주되는 어머니의 삶을 재평가하고 비극으로 점철된 가족사를 재구성했다. 이러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미구성은 어머니의 자살과 가족의 비명횡사를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판을 여는 소생적 파국으로 받아들여려는 지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버려진 땅에 씨뿌리기

북미 인디언들은 대지를 어머니의 자궁으로 숭상하기 때문에 경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의 여신 가이아 역시 대지의 신으로 생명의 잉태와 양육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대지와 어머니는 상징적으로 동일시된다. 연구참여자에게 있어서도 어머니의 상징은 역시 대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하늘이 무너진다고 비유하는데 어머니는 뭐랄까. 땅이 폭 꺼진다는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으니까 또 돌아가셨어도 사람들한테는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으니까 폭삭 망한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는 자살로 끝을 맺은 어머니의 현존을 버려진 땅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은 가급적 잊혀져야만 했다. 하지만 버려진 땅은 연구참여자에게는 다시 부활시켜야만 하는 대상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참여자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비극적 죽음을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일종의 소생적 파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버려진 땅을 다시 일구려는 마음은 아버지와의 화해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있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자살로 몬 원인제공자였다. 참여자의 표현에 의하면 “평생을 주색잡기를 능사로 여기다 어머니마저 자살자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버려진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했다. 참여자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이 있는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재혼을 했다. 참여자는 사십 줄이 넘어 새어머니를 맞이해야만 했다. 주위사람들 특히 어머니쪽 친척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비난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착잡했어요. 우리가 모실 형편은 안되지만 그렇다고 꼭

결혼을 하셔야 했나 (중략) 집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펄펄 날뛰었는데 아버지는 원체가 그런 분이라 주위 눈치를 안보시고.. (중략) 억지로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어요.”

참여자가 아버지의 재혼을 인용한 것은 거부장적 사고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부모의 잘못을 탓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연구참여자 2)라는 구술에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혼이 어머니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현상학적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또 다른 해석의 단초를 열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터전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인데... 비극을 비극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돌아가신 분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갔는데 헛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중략).”

연구참여자는 위와 같이 비극의 재탄생을 통해 버려진 어머니의 땅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했다고 해석된다. 결국 연구참여자는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비극을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주제화하면 「버려진 땅에 씨뿌리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참여자 3**

〈표 3〉 연구참여자 3의 경험에서 해석된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낮설음으로 살아가기	외동됨의 삶
	세상에 귀막기
마중물 붓기	정신적 재생의 갈구
	현실과 상상의 이중적 구조

① 낮설음으로 살아가기

연구참여자 3에게 있어 남편의 자살은 사회적 삶의 단절을 의미했다. 남편을 잃은 부인을 지칭하는 미망인(未亡人)의 뜻은 아직 죽지 않은 여인이다. 즉 여인의 운명은 남편과 같이 종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살아있다는 여성비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버지를 여윈 아들은 사자(嗣子)라 하여 부를 계승하고 대를 잇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확연하게 편파적이고 대비된다. 이러한 문화환경에서 남편이 자살했다는 사실은 연구참여자에게 혹독한 굴레를 의미했다.

“서방잡아 먹은 년이라는 욕은 그나마 약과예요 사귀던 남자하고 짜고 남편을 밀어뜨렸다는 말도 있었고 하여간 별별 소문이 많았는데 저항은 하지는 못했고 그냥 어디론지 숨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중략). 아무도 모르는데서 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이리로 온 거죠”

연구참여자는 남편의 자살로 인한 고통보다 세상의 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호사적 취미로 던지는 말은 참여자에게는 날선 비수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참여자는 이러한 세상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참여자는 세간의 풍문에 귀를 막고 없음으로 있는 은둔적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된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저도 죽은거나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 소문이 사실이나 아니냐 하는게 별로 중요하게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을 죽였다면 그냥 죽인게 되는 건데.. (중략) 귀를 틀어막고 사는게 편하고 익숙해요. 뉴스도 안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평화예요.”

이렇듯 남편의 자살과 세간의 평은 참여자로 하여금 세상에 귀를 막고 사는 삶을 의미했다.

연구참여자는 결혼 후 모든 것을 남편과 같이 했다고 한다. 세탁소 일은 물론이고 가전제품 하나를 구입해도 남편과 같이 했다. 때문에 남편의 자살은 양바퀴로 굴러가던 수레의 한쪽 바퀴가 스스로 튕겨져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의 삶은 외바퀴로 굴러가는 수레가 되어야만 했다. 홀로서기의 삶, 또는 외바퀴로서의 삶이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대답은 홀로서기가 아니었다.

“남편이 병이나 뭐 딴 걸로 죽었으면 저도 자립을 해서 살수 있을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자살이에요. 죽은 것은 똑같다고 하지만 자살은 달라요 (중략). 남편은 화장을 했는데 이 세상에 흔적도 없어요. 깨끗하게 잊을라고 애도 많이 썼지만 떠나지 못하고 뱅뱅 도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서..”

위의 구술처럼 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외동덤」으로 위치시켰다고 해석된다. 외동덤은 자반고등어 따위의 절인 생선의 배에 덩으로 끼워넣는 작은 자반 생선을 말하는데 참여자는 마치 자살한 남편의 주검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세상에 귀를 막고 외동덤으로 사는 참여자의 생애경험은 「낯설음으로 살아가기」라는 본질적 주제로 표현되었다.

## (2) 마중물 붓기

연구참여자는 자살한 남편과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유착되었다. 세상을 떠난 배우자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여자의 경우 남편의 덩으로 살며 심리적으로 유폐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통상의 죽음과는 다른 애도반응을 보였다.

“남편이 병들어 죽었으면 떠나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탁 놓으면 나도 남편도 편안할텐데 그럴수가 없어요(이하중략) 꿈이라는 거하고 공상이라는 게 참으로 어떨 때는 좋아요(생략). 나만 홀로 두고 간 남편이 원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깐 그냥 같이 사는것 같다는 느낌..”

남편의 자살이 주어진 삶에 대한 부정이었다면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참여자의 심리 역시 부

정의 부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은 남편과의 정신적 재결합을 원하는 강렬한 욕망으로 표현되었다. “실제와 다름없는 꿈속에서의 남편과의 정사”, “터미네이터처럼 다시 합쳐지고 되살아나는 남편의 몸”, “관악산 정상에서 웃고 있는 남편” 등의 꿈속 장면은 정신적 재결합의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남편의 정신적 재생을 욕망했기에 참여자에게는 또다른 현실이 필요했다. 참여자는 엄격한 질서와 실용적 가치가 지배하는 현실과 자유로운 변경과 일탈이 허용되는 상상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고 그 경계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석된다.

“무식하지만 이문열의 소설을 좋아했는데 ‘황제를 위하여’라는 소설을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나요. 텔레비전에서도 드라마로 했는데 딱 하나만 기억이 나요. 마지막 장면에 텔런트 이 00씨가 자기의 인생을 말할 때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노는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나니까 꿈속의 나비가 난지 현실의 내가 나비인지 모르겠다는 대사가 생생해요. (중략)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없는 삶과 남편과 정신적으로 재결합된 삶, 두 개의 삶을 살아가는 연구참여자에게 있어 일은 끊임없이 『마중물』을 붓는 상상적 시연이라고 할 수 있다. 마중물이란 지하 깊숙한 곳에 고여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말하는데 연구참여자에게 있어 남편은 지하 심연의 물이고 참여자의 욕망은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참여자 4

〈표 4〉 연구참여자 4의 경험에서 해석된 본질적 주제와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비극의 짐 떠맡기	자살한 형의 환생으로 살기
	무너진 탑 쌓기
	집요한 그림자

#### ① 비극의 짐 떠맡기

연구참여자 4에게 형의 자살은 인생행로의 수정을 의미했다. 참여자는 현재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목표는 선원이었다. “해양대학을 못가면 원양어선 갑판원이라도 되어 이 바다 저 바다를 떠돌아다니고 싶어”(연구참여자 4의 구술)했다. 하지만 형의 자살은 피붙이의 비극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극을 짊어지고 갈 사람을 요구했다.

“공부도 잘 못했고 내세울 것 없는 형이지만 그래도 우리집의 기둥이고 또 대들보였는데 어머니는 거의 낫 나간 사람처럼 진짜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중략). 형이 죽은 때만 되면 어머니의 우울증은 도져서 거의 10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중략) 자살한 사람은 몸을 받지 못하고 증음귀신으로 떠돈다고 믿었어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허구한 날 절에 가서

빌고 .. 천도제도 지내고 애절했어요.”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자살한 혼백은 극락왕생할수도 없고 또 사람의 몸을 받아 다시 환생할 수도 없는 중음귀신이 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어머니의 믿음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어머니의 우울증상과 두 번의 자살시도로 인해 생각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형을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략) 어머니가 자꾸만 심각해지니까 무슨 수를 쓰기는 써야겠는데 결국은 형의 환생이 내가 되자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없는 게 됐지요. 형의 환생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자살한 형의 환생으로 살기로 작정한 연구참여자는 간단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형이 남긴 유서를 해독하기 위해 한동안 골몰했다고 한다. 참여자 형의 유서는 “나비 넥타이를 매고 웨이터로 일하다가 부잣집 딸을 꼬셔 폼나게 살고 싶었다”였다.

나비넥타이와 웨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알 수 없었지만 가난에 포원이 맺힌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지하단칸방, 파출부, 신문배달로 상징되는 가난은 연구참여자에 의해 극복되어야만 했다.

“지금도 가끔은 형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집이 부자였거나 또 형이 자살로 죽지만 않았어도 나는 내 인생대로 살았을 거예요. (중략)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오고 중국집 시다(조수)로 들어가서 프라이팬으로 머리통 얻어 맞아가면서 살았는데 지금 요리사들은 신사예요. 옛날에 중국집 이다바(주방장)하면 곤조로 알아줬어요. (이하중략) 그래도 중국집이 쇼부가 제일 빠르니까 악착같이 일했는데..”

위와 같이 참여자의 생애경험은 형을 자살로 몰고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렇다면 가난을 벗어난 지금 형의 자살은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던져졌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안통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이 죽은 모습이 또렷해요. 지금은 덜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형 모습이 떠오르면 소름이 끼치죠. 불쌍한게 아니라 공포예요. (중략) 자살한 사람이 있는 집에는 자살한 사람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마누라나 자식들한테 해코지 하는 것은 아닐까 영 불안하고 그래요. (중략) 어머니처럼 절에 가서 천도제도 잇을만 하면 지내요. 좋은 곳으로 가라는 뜻도 있지만 식구들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는 것도 솔직히 들어 있어요.”

위의 구술처럼 참여자는 20년이 흐른 현재에도 자살한 형의 그림자를 달고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는 완전히 견디지 않고 참여자를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의 생애경험의 본질적 주제는 「비극의 짐 떠맡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참여자 5

〈표 5〉 연구참여자 5의 경험에서 해석된 본질적 주제와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정지된 생애시간	저주 피하기
	스테레오식 일상의 반복

① 정지된 생애시간

연구참여자 5는 “나이 마흔에 인생잔치는 끝났다”라는 간결한 말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다. 인생을 잔치로 표현할 정도로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참여자가 스스로 잔치를 작파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도 있다. 이 아이러니는 부인의 자살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경험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유서를 보니까 등골이 오싹하고 진저리가 났어요. 그래도 한 때는 부부였는데 이렇게 지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화가 나기도 했는데 (중략) 죽어 귀신이 돼서라도 못다 한 원한을 다 갚는다고 했는데 그 저주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중략) ”

참여자의 경우 위의 구술처럼 부인의 자살은 저주와 원한을 의미했다. 산자와 죽은 자는 죽음의 원인을 불문하고 분리되어야만 하지만 연구참여자에게 있어 부인의 저주가 그 분리를 방해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참여자의 그 이후의 삶은 많은 부분이 저주와 저주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차지했다.

“못된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중략) 마음이 가는 여자도 있었는데 집사람 유서가 생각이 났어요. 또다른 불행이 있을 것 같아 피했고(중략) 이사를 갈 때도 아파트인데도 방위를 따지고 터가 어떤지, 뭐 음기가 강한지 그런 것들을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종업원 에 하나가 배달을 갔다가 어디서 주웠다면 꽃병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냥 냅다 꽃병을 깨뜨리고 빗자루로 쓸고 소금 뿌리고 난리를 쳤어요... 가게 애들은 멍하니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꽃병에 마누라 저주가 묻어 들어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중략) 자살한 귀신도 오싹한데 원한까지 겹쳤으니 그 이후로는 거의 전설의 고향이에요.”

참여자는 부인의 자살을 저주로 의미화했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전설의 고향’으로 규정지었다. 이는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며 죽은 자로부터 전해지는 익명의 메시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생애경험에서 드러난 또다른 주제는 스테레오식 일상사의 반복이라고 해석된다. 참여자의 일상사는 사업장 출근, 퇴근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전보기로 정리될 수 있다. 사업상 필요한 교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관계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었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등산이니 골프니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지만 저는 TV하고 살아요. 드라마는 다

깨고 있으니까 전에는 무척 활동적이었는데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역마살이 끼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마누라 죽고 나서는 180도 변했어요. (중략) 아무것도 안하는 게 되게 편하니까..”

참여자가 이렇듯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동일한 패턴의 일상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회귀적 소망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참여자는 부인의 자살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경험적으로 고찰할 때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가톨릭 신자들의 묵주기도, 불교신자들의 염주굴리거나 절하기 등은 단순한 의례의 반복이다. 연구참여자 역시 직장일과 집에서의 TV보기로 단순화된 행동의 반복을 통해 부인의 자살과 관계된 불안으로부터 탈출하여 안정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참여자의 부인이 자살한 후 생애맥락에서의 경험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인의 자살로 야기될 수 있는 저주를 피하고 이로 인해 생성된 불안을 동일한 패턴을 반복함으로써 해소하기로 하는 지향이 강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의미구성은 「정지된 생애시간」으로 주제화했다.

## 5. 결론 및 제언

### 1) 현상학적 글쓰기를 통한 전형적 구조 : 떠난 자의 잔여범주로서 남은 자의 삶

본 연구는 자살자 가족들이 가족의 자살 후 겪었던 생애경험을 현상학적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의 본질구조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참여자1의 경우 경험의 본질적 주제는 「은적지파기」와 「암호에서 맴돌기」, 참여자2의 본질적 주제는 「소생적 과곡」과 「버려진 땅에 씨뿌리기」, 연구참여자 3은 「낮설음으로 살아가기」와 「마중물 붓기」, 연구참여자 4는 「비극의 짐 떠맡기」, 연구참여자 5는 「정지된 생애시간」으로 해석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개별경험의 본질구조를 관통하는 전형적 주제는 「떠난 자의 잔여범주로서 남은 자의 삶」이라고 해석되었다. 가족구성원의 죽음은 가족사에 불행한 사건으로 등록되는 동시에 또한 떠난 자와 남은 자의 분리라는 과업을 남긴다. 자연사, 사고사, 병사 또는 천수를 누리고 죽은 호상(好喪), 요절(夭折)을 불문하고 산 자는 죽은 자와 물리적, 심리적으로 영결(永訣)하여 일상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자살로 가족을 잃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죽은 자와 유착(癒着)되어 떠난 자의 주변을 맴돌았다. 이러한 심리적 유착은 가족에 대한 기억과 추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서의 실존양식이라고 칭해도 무방할 만큼 전인격적이고 전생활적이다.

연구참여자 1은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만을 유지한 채 자살한 아버지의 마지막 낫두리를 해독하는 데에 골몰했고 지역사회에서는 떠도는 섬으로 부유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 역시 현실의 삶 이외에 남편과의 정신적 결합으로 영위하는 또다른 상상의 삶을 살고 있었고 연구참여자 4는 오랫동안 자살한 형의 환생으로 살아갔다. 연구참여자 5 역시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자살한 부인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접철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일견 자살한 어머니와 분리되어 일상의 정상과 평온을 회복한 듯이 보이지만 어머니의 대지와 유착된 상태에서 가족사를 재구성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 유착은 당사자들의 삶을 떠난 사람들의 잔여범주로 규정하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해석된다. 잔여범주로서의 삶은 떠난 자들의 유업을 계승하거나 못다 이룬 숙원을 이루는 분리된 상태에서의 연계가 아니라 유착된 상태에서의 몰아적(沒我的) 혼돈(chaos)이라고 할 수 있다. 무질서하고 피아가 분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떠난 자의 그림자나 또는 끝자락을 잡고 사는 생애를 경험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연구참여자 4의 경험구조가 단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여타 연구참여자들의 생애경험도 맥락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연구참여자 1은 농촌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으나 아버지의 자살 이후 아버지의 흔적을 맴도는 생활을 했고 연구참여자 2는 어머니의 자살 이후 그 비극을 재탄생시키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연구참여자 3의 경우 자신을 은폐하고 자살한 남편의 그림자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참여자 5는 정지된 생애시간이라는 본질적 주제가 시사하듯이 그의 생애시간은 부인이 자살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고 그 이후의 시간은 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끝물시간이었다고 해석된다.

지금까지 보고된 자살자 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자살이라는 비극에 초점을 맞춰 가족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고통과 사회적 부적응만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경우 비록 5명의 연구참여자에게 국한된 분석이지만 자살자 가족들은 가족의 자살이라는 현상에 대해 의미를 구성해야만 하는 숙명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의미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삶의 양태가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제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살자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성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가족들의 정신적 외상과 혼란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다.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자살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자살에 대한 관료적 정의(官僚的 定義)에 의하면 자살은 유서가 있어야 하고 자살할 만한 충분한 이유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불충분한 경우 가족들이 살해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 3의 경우 남편을 밀어 추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그 밖의 연구참여자들도 본격적인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완곡한 형태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들이 가족의 자살을 자신의 귀책문제로 인지하고 왜곡된 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는 자살자 가족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에 분리를 위한 의례의 도입이다. 우리의 현실은 자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도 미비하고 개입 역시 상담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지지적 상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분리를 위한 의례이다. 의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자기를 확인하는 내적 점검이라 할 수 있다. 백일, 돌, 입학, 졸업, 생일 등 인간의 일생은 각종 의례의 연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음의 경우 우리는 장례식이라는 의례를 통해 죽은 자를 떠나보내고 산 자와 죽은 자는 분리된다. 하지만 자살자 가족의 경우 물리적인 영결식은 치루었지만 심리적인 영결식은 남겨두고 있다. 자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심리적 영결을 위한 의례적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부기한다.

본 연구의 경우 자살자 가족들 중 특정 구성원만 참여했다. 때문에 가족 전체의 경험은 구조화할 수 없었다. 자살자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척 등 가족내 위치에 따라 그 반응과 의미구성 등도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흡수하여 총체적 관점에서 자살자 가족의 경험의 본질구조를 드러내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각 개별사례의 주제만 기술했고 다른 연구결과와의 비교 기술을 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사례연구인 동시에 현상학적 연구임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주체의 주관적 세계를 드러내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타사례와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다.

## 참고문헌

- 김승용. 2004. “한국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181-205.
- 김정진. 1998. “동반자살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정신보건 정책 및 예방 프로그램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6: 99-120.
- 김현순·김병석. 2007. “자이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27(1): 23-37.
- 김형수. 2000. “노인자살의 이해와 일차적 예방.” 『한국인구학』 23(2): 167-187.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2-172.
- 박경애. 1996. “성과 자살.” 『가족과 문화』 1: 149-171.
- 박병금·노필순. 2007. “우울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변인: 우울청소년과 비우울청소년의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168-193.
- 박봉길·전석균. 2006.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을 매개로 한 관련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 58-90.
- 박상학·김경환·김학렬·김상훈·표경식·조용래. 2000. “한국에서 한 일간지 신문기사 검색을 통한 IMF전과 후의 자살양상비교.” 『조선의대논문집』 25(1): 67-77.
- 박지영. 2007. “노인자살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295-330.
- 배지연. 2004. “노인자살에 대한 사례분석: 신문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3: 65-82.
- 배재남. 2001. “한국노인의 자살고찰.” 『노인정신의학』 5(2): 113-119.
- 손현균·김이영·안동현. 1997. “한국의 동반자살 : 신문보도를 통해 본 동반자살 분석.” 『정신건강연구』 16: 181-193.
- 엄태완. 2007. “노인자살관련요인: 무망감과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통제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355-379.
- 은기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회』 28(2):

- 97-129.
- 윤성림·윤진. 1993.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특성의 탐색.” 『한국심리학회』 6(1): 107-120.
- 이미숙. 2007.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탐색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0: 153-175.
- 이상원. 2004. “자살과 교회의 대책.” 『신학지남』 280: 103-114.
- 이은숙. 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신영. 2004.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자살현상에 대한 일고찰.” 『사회과학논총』 23(1): 85-109.
- 정승민. 2004. “동반자살에 관한 연구 : 신문기사를 통한 우리나라의 동반자살실태분석.” 『한국공인행정학회보』 18: 191-210.
- 정호영·노승현. 2007. “노인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우울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4): 789-805.
- 조계화·김영경. 2008.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극복경험.” 『대한간호학』 38(2): 258-270.
- 최연희·김수현. 2008. “제가 노인의 우울에 따른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28(2): 345-355.
- 한승용. 2008. “사회적 통합과 자살: 연휴가 자살자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 31(1): 169-198.
- 홍나미. 199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수·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125-149.
- Cerel, J., J. R. Jordan., and P. Duberstein. 2008. “The impact of suicide on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9: 38-44.
- Clayton, P. T. 1990. “Bereavement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1: 34-38.
- Cleiren, M. P., and R. F. Diekstra. 1995. *After the loss: Bereavement after suicide The other types of death*. In B. L. Mishra(ed), *The Impact of suicide*, New York: Springer series on death and suicide.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 Thousand Oaks, CA: Sage.
- Crinar, J. G. 2005.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 *Psychiatric Care* 41: 14-21
- Cynthia, R., D. Karus., and H. Jiang. 2000. “Child survivors of parental death from cancer or suicide: depressive and behavioral outcome.” *Psycho Oncology* 9(1): 1-10.
- De Groot, M. H., J. De Keijer., and J. Neeleman. 2006. “Grief shortly after suicide and natural death: A comparative study among spouses and first degree relativ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6: 418-431.
- Durkheim, E. 1897. *Suicide : A Study in sociology*,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김충선(역). 1995. 「자살론」, 서울: 청아.
- Ellenbogen, S., and F. Gratton. 2001. “Do they suffer more? Reflection on research comparing suicide survivors to other surviv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1: 83-90.
- Figley, C. R., and R. J. Kleber. 1995. *Beyond the victim,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Kleber, R. J.,

- C, R, Figley., and B. P. R. Gersons (Eds). *Beyond trauma : Cultural and societal dynamics*, New York : Plenum Press.
- Gibbs, J. P., and W, T, Martin. 1964. *Status intergration and suicide*. Eugene, Oregon : University of Oregon Press.
- Harwood, D. M, J. K. Hawton., T, Hope., and R, Jacoby. 2000. "Suicide in older people : mode of death, demographic factors, and medical contact death in one hundred and ninety five case." *Geriatr. psychiatry* 15: 736-743.
- Jordan, J. R. 2001. "Is suicide bereavement different? A reassessment of the literature."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1: 91-102.
- Leathy, J. M. 1992. "A Comparison of depression in women bereaved of a spouse, child, or a parent." *Omega* 26: 207-217.
- Marschean, A. 2002. *Developing a plan and stratege for suicide prevention in the commonhealth*. Joint Commission on Behavioral Health Care.
- McIntosh, J. L., and A, Wrobeski. 1998. "Grief reactions among suicide survivors : An exploratory comparison of relationships." *Death Study* 12: 21-39.
-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682.
- Mitchell, J. T., and G, S, Everly. 1996.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 An operation manual for the prevention of traumatic stress among emergency services and disaster workers* (2nd ed), Ellicott, MD : Chevron publishing Corporation.
- Mitchell, A. M., T, J, Sakraida., Y. Kim., L. Bullian., and L. Chiappetta. 2009. "Depression Anxiety and Quality of life in suicide survivors : A comparison of close and Distant Relationship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3(1): 2-10.
- Pompili, M., D, Lester., E, De-Pisa., A, Del Casele, R, Tatarelli., and P, Girard. 2008. "Surviving The Suicides of significant others : A case study." *Crisis :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9(1): 45-48.
- Reed, M., and J, Greenwald. 1991. "Survivor - victim status: Attachment and sudden death bereavemen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1: 385-410.
- Seguin, M., A, Lesage., and M, Kiely. 2009. "History of early loss among a group of suicide survivors." *Crisis :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16(3): 121-125.
- Silverman, R., L. Range., and J. Overholser. 1994. "Bereavement from suicide as compared to other forms of bereavement." *Omega* 30: 41-51.
- Spratt, M, L., and D, R, Demney. 1991. "Immune variables, depression and plasma cortisol over time in suddenly bereaved parents." *Journal of Neuro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6: 299-306.
- Stroebe, W., and H, Schut. 2001. *Risk factor in bereavement outcome: A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review*. In Strobe, M, S., R, O, Hansson., W, Strobe., and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 Consequence, Coping and Car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all, K., K, Kolves., M, Sisask., and A, Varnik. 2008. "Do survivors respond differently when alcohol abuse complicates suicides? Findings from the psychological autopsy study in Estonia."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5: 129-133.

Tekavcic-Grad, O., and A. Zavasnik, 1992. "Aggression as natural part of suicide bereavement." *Crisis* 13: 65-59.

Onrust, S., P. Cuijpers., F. Smith., and E. Bohlmeijer, 2007.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fter bereavement."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19: 921-934.

Van-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Ontario : SUNY Press.

Worden, J. W. 2001. *Grief Counselling and Grief Therapy :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 New York : Hove.

Zisook, S., and S. R. Shuchter, 1993. "Uncomplicated bereave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4: 365-372.

## A Phenomenological Case Study about the Experience of Committing Suicide's Families<sup>1)</sup>

Lee, Keun-Moo

(Sahm Yook University)

Kim, Jin-Sook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experience of committing suicide's family and the purpose of study is to understand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ir life experience and to erect the grounded data for the restoration of committing suicide's famili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phenomenological case their family by suicide participated to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The authors interpreted the data in terms of Van-Menen's analysis framework. The result as follows: The essential themes of participant 1 were 「digging seclusion site」, 「whirling around cryptograph」 and participant 2 were 「resuscitational catastrophe」, 「sowing seed on destroyed land」, and participant 3 were 「living Anonymous」, 「pumping priming water」, and participant 4 was 「taking on the burden of tragedy」, and participant 5 was 「stopen life time」. The typical theme was 「living person's life is died person's remaining category」.

Key words: phenomenological casestudy, suicide, experience of suicide's family

[논문 접수일: 09. 11. 21, 심사일: 09. 12. 08, 게재 확정일: 09. 12. 29]

---

1)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Chosun University (2008).